발레를 사랑한 소년, 꿈을 이루다

광주 출신 전준혁군 영국 로열발레단 입단

세계 3대 발레단…학생 신분으로 이미 작품 참여

2014년 동양인 최초 로열발레학교 전액 장학생

스웨덴 왕립발레단 출신 고모 등 '발레 가족'

"학교를 마치면 로열발레단에 입단하는 게 꿈이예요. 발레단 건물과 학교 건물이 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무대에서 봤던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무용수들과 늘상 마주치는데 그들과 한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면 짜릿하죠."

발레를 사랑하는 발레리노 소년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2015년 영국 로열발레학교 재학중 광주를 방문, '파리의 불꽃' 무대를 선보였던 발레리노 전준혁(19) 군은 인터뷰 당시, 로얄발레단 입단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했었다. 광주에 오기 전 발레단 전용홀인 로얄오페라하우스에서 작은 공연을 했는데 그 무대에 서 있는 게 정말 꿈같다고 했던 그였다.

광주 출신 전준혁 군이 프랑스 파리오페라 발레단, 미국의 아메리칸발레씨어터와 함께 '세계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영국 로열발레단에 입단한다. 전군은 2003년 입단, 현재 퍼스트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재일교포 4세 발레리나 최유희 이후 두 번째 한국인 로열발레단 단원이 되며 한국인 발레리노로서는 처음이다.

전군은 지난 2014년 3월 영국 로열발레학교에 입학했다. 발레리노들의 꿈인 영국로얄발레학교는 1926년 '영국 발레의 어머니'로 불리는 니네뜨 드 발루아가 세운 세계적인 발레 전문학교다. 전 군은 한국인 남성 발레리노로는 처음으로 왕립발레학교에서 3년 정규 코스를 밟고 있으며 동양인 최초로 전액 장학금(1년 학비 5000만원)도 받았다.

한해 배출되는 로열발레학교 졸업생 30여명 중 1~2명만 로열발레단에 입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군은 학생 신분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로열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군무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입단은 7월 학교를 마친 후 8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군은 4살 때 고모가 운영하는 발레학원에서 처음 발레를 시작했다. 전 군의 집안은 광주에서 유명한 무용 가족으로 고모 세명이 모두 발레를 전공했다. 숙명여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전정미씨, 유니버셜발레단원으로 10년간 활동했던 정아씨, 호남예술제에서 초·중·고 시절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고 유니버셜발레단과 스웨덴 왕립발레단 솔리스트를 거쳐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은선씨가 그들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 입학해 김선희, 조주현, 김용걸 교수를 사사한 전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판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으로 선발되기도 했지만 발레에 전념하고 싶어 중도하차했다. 이후 선화예술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탈리아 시실리 바로카 콩쿠르,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에서 주니어 부문 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outh America Grand Prix)'에서 시니어 부문 그랑프리(대상)를 차지했다. 한국인으로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석무용수 서희(2003),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2012)에 이은 세번째 수상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

지난 2015년 영국 로열발레학교 재학중 잠시 광주를 방문,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독무 '파리의 불꽃'을 선보인 전준혁군. 〈광주일보 DB〉

사업실적 조작 254억 성과급…국책사업 비리 40명 적발

성과급을 받으려고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하거나, 뇌물을 받고 업체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해 이 중 7건,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4~2015년 총 9637억원(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처리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2015년)과 1.988점(2016년)을 획득,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254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정부는 허위 준공처리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본사와 임원 4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직원 81명을 징계했다. 이 중 본사 회계담당자 2명에 대해선 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5대 종단 종교인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조속 결정을"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원불교 전 평양교구장 김대선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조계종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홍진 신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김현호 신부,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국정운영이 중단되고,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 523명이 뜻을 함께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되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비(非)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법안 재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피해 검토없이 졸속 처리 여야 초월 당론으로 법 개정을

비수도권 의원 중심 추진…수도권 의원 반발 걸림돌

◇재개정 필요성 공감대 커져

문제가 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70여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104조 24항에서 규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바꾸면 법안은 원래대로 환원된다.

그렇게 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방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번복하는 문제를 놓고 법률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다시 개정한 경우가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2014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5년 다시 개정됐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바꿨으나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중산층·서민층에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이는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결국 여야는 법률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재개정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기다 지난해 연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정국 때문에 국회의 법안 심사까지 졸속으로 이뤄져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조세소위에서 해당법안을 심사했던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때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 반발 극복이 관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조특법 재개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유턴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수도권 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 반월지구 등 이미 인구나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도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산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안 재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기재위 정원(26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별 위원분포가 불균등하게 이뤄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거기다 조특법 같은 세금관련 핵심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에는 10명의 의원 중 무려 7명이 수도권 지역구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 심사과정에서 해당법안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할 여유가 없고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안에서만큼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여야를 벗어나 공동으로 대처해 각 당의 지도부를 압박한 뒤 당론 차원의 법안 재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최권일·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cki@kwangju.co.kr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담양 대덕 특산품
호두농장
♠ 식용호두 · 호두묘목 분양판매 ♠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정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산림청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061-382-4728/010-3604-6712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학교
현 전도사 사역자 특별우대! 여목사제도!
광주(담양) 바이블칼리지로 오십시오!
광주 바이블칼리지는 성경을 사도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대로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정확하게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바이블칼리지로 오십시오 목회자가 되실 분, 선교사로 사역하실 분, 이미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신 분, 목회학 박사학위를 원하시는 분, 성경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시는 평신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경을 복받는 비결이나 도덕이나 종교적인 교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여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성교자들이 복음을 성교하게 하고 역사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광주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 16분의 목사님들이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인준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제도 (여목사제도)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속사적인 풍성한 가르침
- 목회사역과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수업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모집인원 : 수시모집
모집인원 : 월요반, 저녁반(월, 화), 토요반 각 30명 내외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접 수 처 : 본교 행정실
**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바이블칼리지 신학연구과 교수

성 명	시무교회	성 명	시무교회
이판수학장	성도교회	변 찬목사	광암전원교회
최사제처장	영산제일교회	임무광목사	미국 휴스턴 포트워스 한인장로교회
이신범목사	원리전선교사	김정민목사	동남대종교대연구소
황영준목사	광주동산교회	고경태목사	주님의교회
박성천목사	담양중앙교회	진장환목사	순천매일중앙교회
박용민목사	광주예람교회	김범태목사	광주은평교회
이상미목사	광주새한교회	박광수목사	광주창조교회
이원재목사	광주무등교회	신동구목사	주님의교회
장용삼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양점순목사	주사랑교회

바이블칼리지 성경대학원 교수

장용삼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최사제목사	영산제일교회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학교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성도리 산 72)
Tel : 061-381-0000
바이블칼리지 카페 cafe.daum.net/biblecoll
학교 홈페이지 gjbc.kr